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세션 1b, "히브리서" 소개: 설교의 누구, 무엇, 왜 (2 부)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저자가 우리에게 남긴 설교의 내용에서 저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 만큼, 그가 언급한 회중에 대해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 이 본문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서신 서두가 없는 것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러저러한 곳에서 시작하여 우리를 위해 그 빈틈을 메웠다면 환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문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실제 지리적 참조는 마지막에 나오는 인사말에서 나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인사하는 당신을 찾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중에 대한 아주 초기 추측은 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 심지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본 전통에는 이 특정 문서에 그 사본을 제작한 서기관이나 필사자가 붙인 많은 제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목은 실제 청중인 히브리인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로마에서 쓰여진 히브리인에게, 이탈리아에서 쓰여진 히브리인에게, 이탈리아에서 디모데를 통해 쓰여진 히브리인에게, 로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히브리인에게, 이탈리아에서 익명으로 디모데를 통해 쓰여진 히브리인에게를 읽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기관 제목의 공통점은 이 문서가 기독교 유대인의 소비를 위해 쓰여졌다는 주장입니다.

청중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동일시는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제가 대체로 오류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구약에 대한 철저한 관심이 이방인 청중보다 유대인 청중에게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거나, 이 주장의 변형은 저자가 청중이 구약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정도가 이방인 청중보다는 유대인 청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약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기독교인을 위한 신성한 신탁의 본문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만큼 이 신성한 본문들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또한 기독교 예배의 맥락에서 구약의 광범위한 내용에 빠르게 노출되고 익숙해질 것이고 수년에 걸쳐 기독교 가르침을 들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베드로전서라는 다른 두 개의 신탁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은 명백히 이방인 기독교인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은 생후 8일째에 할례를 결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또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웃들은 그들이 예전에 했던 그리스-로마 종교에 계속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은 높은 비율, 구약성서에서 인용한 내용과 참조 및 암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완전한 영향을 미치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암시 및 참조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교회의 초기 수십 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중의 유대인 대응자들만큼 구약성서의 내용에 관심이 있었고 철저히 사회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유대계 기독교 청중을 위해 자주 제시되는 또 다른 주장은 저자가 희생 제사 의식과 그 구성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급이 성전에서, 또는 그 전에는 성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그의 관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관심사이지만 이방인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저는 히브리서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신성한 경전으로서 구약성경의 주요 걸림돌, 즉 이러한 본문을 신성한 계시와 권위 있는 규범으로 붙잡는 방법과 그들이 규정하는 의례적 숭배를 실천하지 않는 방법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을 읽는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의례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본문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큼이나 1세기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시급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자는 주로 유대교로의 회귀를 막는 데 관심이 있다고 종종 제안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저자가 이탈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아니라 이탈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기독교인이 비기독교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만 또는 주로 생각했다면, 그가 이것을 히브리서 3:12에서처럼 단순히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으로 말했을 것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태양을 천사, 모세, 레위인 숭배와 비교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태양과의 관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홍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비교가 유대교를 활기찬 대안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다.

설교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저자의 청중 중 일부였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중이 개종한 후 주로 가르친 주제는 유대인 개종자보다 이방인 개종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저자는 6장 1~2절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청중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 세례와 안수에 대한 가르침,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에 노출되었다고 썼습니다.

이제, 제2성전 시대의 전형적인 유대인은 물론 이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광범위한 유대인 집단, 심지어 유대교 내의 유명한 정당이나 학파, 예를 들어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와 일치하지 않는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우주에 대한 유대인적 구성의 매우 일반적인 기둥입니다. 저자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신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상할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에서 이방인으로 개종한 것에 대한 단서일 것입니다. 우상은 종종 죽은 작품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지혜는 장인이 우상을 만들 때 손으로 죽은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같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이방인이 개종한 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저자와 따라서 회중이 속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울의 사명 자체의 본질은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청중 가운데 있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고, 설교할 때 청중에 유대인을 포함시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회중을 개발하는 데 전념했지만, 그는 주로 민족에게 다가가는 측면에서 자신의 일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바울 선교에 속했다면, 그는 그 선교에서 생겨난 교회에 연설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섞인 회중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특정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의 섞인 회중이 살았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소 당황합니다. 지리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1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이제,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편지가 이탈리아에서 쓰여졌거나 편지가 해외 형제 자매로부터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초기 서기관의 추측은 첫 번째 옵션과 일치하며, 아마도 로마에서 다른 곳의 기독교인에게 쓰여진 두 개의 다른 1세기 편지인 첫 번째 베드로와 첫 번째 클레멘트의 모델을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표현은 그리스어로도 잘 입증된 기원에 대한 표현 방식이지만, 장소와의 분리에 대한 잘 입증된 표현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이탈리아, 아마도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기독교의 주요 중심지이며, 작곡 장소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수용 장소에 대해서는 바울 선교의 벨트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외에는 말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의 사회적 분석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인 믹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인 *The First Urban Christians*를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거의 같은 정도로 같은 종류의 분석에 적합하지 않지만, 수신자의 사회적 수준에 대해 몇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교는 단순히 포위된 대중이나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 온 청중을 암시합니다.

이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은 한때 몰수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중은 가장 극심한 박해 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환대를 베풀고 자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소유와 지위를 회복하려는 야망에 대해 청중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가진 자, 또는 적어도 한 번 가진 자에게는 없는 자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떠올리게 하는 지역 사회 역사의 세 가지 에피소드에서 청중의 이야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특정 에피소드를 전략적으로 회상합니다. 각각은 그의 설교에서 목적을 제공합니다. 즉,

청중이 현재의 도전에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한 세 가지 창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기원, 새로운 개종자로서 받은 사회화,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서 더 이른 시기에 이웃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공동체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는 질문의 형태로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권능의 역사와 성령의 분배로 그들과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이 회개의 경험, 말씀을 듣는 경험에서, 듣는 자들은 또한 신성한 임재와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의 진실을 확증해 준 신성과의 체험적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의 서두 구절을 히브리서 2장의 이 설명과 비교한다면, 특히 듣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분에서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그룹, 그 모임, 그리고 그 기초적인 세계관과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써 신성함, 궁극적인 것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얻은 카리스마적 정당성에서 투자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청중이 신이 어떻게 작동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이전의 이해에서 단호하게 벗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비기독교 유대인이든 비기독교 이교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메시지와 메시지를 통한 신과의 만남은 신성과 상호 작용하는 오래된 방식과 단절하도록 확신시켰고, 따라서 신성과 상호 작용하는 패턴을 유지했던 사회적 네트워크와도 단절하도록

확신시켰습니다. 교회와 별개의 회당이든, 그리스와 로마 도시와 바울 선교의 영토 전역에 있는 사원과 시민 공간에서든 말입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자세히 살펴보는 공동체 역사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들이 이 새로운 삶의 방식, 복음이었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탁에 몰두했고, 특히 의심할 여지 없이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에 몰두했으며, 저자가 6:1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운동이 형성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였으며,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이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그들의 주요 교리 문답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와 안수에 대한 가르침,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근본적입니다. 바울은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1:9에서 데살로니가인 개종자들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회상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한다는 개념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포기하는 언어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15장 17절은 이교도 장인이 법없는 손으로 죽은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 저자는 종종 우상을 죽은 것, 즉 네크라 라고 부릅니다 .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상 숭배가 신성한 권능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또한 죽은 행위에서 회개하는 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행위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에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적 배경과 일치하는 이 구절의 해석일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요. 모세는 그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죽음보다는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죽은 행위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은, 구약 율법을 행하거나 구약 종교를 행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 운동이 설교했던 죽은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은 효과가 없는 행위였을지 몰라도, 확실히 죽은 행위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저자의 구약 율법과 심지어 구약 종교에 대한 견해를 왜곡한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여기서 기독교 이전의 삶을 전략적으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별개로 행한 그들의 삶의 죽은 행위와 개종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를 그의 편지의 다른 두 지점, 히브리서 10:24와 히브리서 13:21에서 대조합니다. 이런 종류의 전략적 채색은 그리스도인들이 덜 고귀하고 확실히 덜 열매 맺는 정체성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현재의 정체성을 고수하기를 원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세례는 기독교 운동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당히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한 정체성과 한 주요 사회 집단에서 다른 정체성과 주요 사회 집단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으로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세례는 모두 옛 삶에 죽고 새 삶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식에는 포기의 요소가 있으며, 새로운 삶과 새로운 공동체에 자신을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에서 의아한 점은 그가 복수형으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한다는 점이며, 저자가 이교도나 유대교의 정화 의식과 세례를 대조하는 다른 초기 가르침을 암시했는지, 아니면 초기 교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독특한 정화 관행에 세례를 추가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자가 나중에 10장 22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는 이중 정결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지고, 육체적인 세례이지만 양심이나 마음은

예수의 죽음으로 나쁜 양심에서 씻겨지고, 세례의 영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자가 이 구절 직후인 6-4절에서 성령의 몫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다른 가능성은 저자가 물에서의 세례를 공동체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입장이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흔하며, 바울의 사명과 관련된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종자가 성령을 받도록 돕고, 개종에서 완성까지의 여정을 위해 신적으로 힘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그들의 사회화의 마지막 두 요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유대교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측면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행동 방침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세속적 결과를 상대화하고 사후 결과를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회중이 사후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격려하는데, 사후 비용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해 가르침과 의식을 결합하는 강력한 재사회화 과정을 반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34절에서 설교자는 수신자들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큰 긴장과 적대감의 에피소드, 아마도 긴 기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은 여러분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초기의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일부는 비난과 시련으로 인해 되었고, 일부는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과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자들에게 동정심을 보였고, 더 좋고 오래 지속되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의 재산을 압류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설교가 전해진 당시가 얼마나 오래 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교 집단의 명예가 그들이 이 예수와 지중해 도시에 그의 이름으로 퍼져 나가는 운동과 동일시한 결과로 위태로워졌다는 분명하고도 가슴 아픈 그림을 얻습니다.

이전 시절에 그들의 이웃들은 비난과 일종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괴롭힘으로 그들에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들이 겪은 수치심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공동체가 받은 비난과 괴롭힘의 미덕으로 인해 광경이 되었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이 기독교가 아닌 이웃에게 가장 큰 표적이 된 자매와 형제를 향해 용기 있게 자발적으로 나섰고, 새로운 행동 패턴과 새로운 충성심의 결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인 방법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가장 수치를 당했고 비슷한 수치, 괴롭힘, 심지어 자신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초대할 이 사람들의 파트너임을 공개적으로 기꺼이 드러내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저자는 또한 재산 압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식적인 몰수 행위였는지, 예를 들어 신자들에게 관련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는지, 아니면 고대 세계에서 자주 일어났던 것처럼 집단이 호의를 얻지 못했을 때 소유물을 약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집단이 강력한 후원자나 법적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그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저자의 예의 요점은 과거에 공동체가 이 모든 것을 인내심과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투자가 이제 신의 눈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예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1세기 로마 상원 의원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명예로운 것은 명예롭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진다고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존중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집단 가치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근본적인 축 또는 가치의 축이며, 그 위에 다른 고려 사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이웃들은 기독교인이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이 새롭고 의심스러운 충성으로 옮겨감에 따라 굴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웃들이 그렇게 한 동기는 자신들이 변칙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한 동양의 종파로 전향한 이웃들을 되찾고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싶어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면 회당의 압력은 그들을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더 엄격하게 지키도록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과 그의 사명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과 그렇게 가깝게 어울리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인 이웃들이 이 집단에 가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이상의 개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의 반응에는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는데, 이웃들이 이 이상한 컬트로 전향하면서 이웃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외부인이 기독교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반사회적이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행동, 즉 시정할 만한 선택으로 여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 중 일부가 기독교 집단에 합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보았을 것은 불경건함, 심지어 무신론으로의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상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돌이킨 것을 찬양했을 때,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족 신을 고수하기 위해 대부분의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마도 기독교 운동에 합류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혁명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이 집단에 대해 무엇이든 알았다면, 그들은 그 지도자가 로마 총독에 의해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운동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둘러싼 경계를 침식할 위협이 되는 운동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이전에 경계를 잘 지키던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고, 아마도 기독교 예배 장소로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변에 두신 경계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 개종자들을 기껏해야 메시아적 사칭자, 최악의 경우 신성모독자, 사탄과 결탁한 마법사인 사람의 추종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

수신자의 반응, 이웃의 수치심과 시정 압력을 경험한 이 초기 시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거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수치심을 돌리려는 시도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무시했으며, 대신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발견한 이 그리스도와 그들을 날개 아래 데려간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고수했습니다. 이웃의 수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이전의 기간을 그들에게 내세워 그들이 이전의 담대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도 고대 텍스트의 저자나 그 고대 텍스트의 독자에 대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를 받는 순간의 청중의 상황에 대한 정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 물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저자가 어떤 도전에 대처했는가입니다. 이 텍스트에 반영된 기독교 운동에 대한 새로운 또는 강화된 반대의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웃들이 그들의 열정적인 굴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의 냉정한 무시가 그 이전의 걱정적인 굴욕과 괴롭힘 행위를 대체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와 구별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저자는 외부인으로부터의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에 대해 말합니다.

저자가 이 설교를 쓰고 보낸 데에 교리적 편차가 시급한 원인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은 때때로 수신자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너무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거의 확실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본문을 과도하게 거울로 읽는 나쁜 사례입니다.

만약 저자가 수신자들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면, 콜로새서에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1:5에서 14까지 이어지는 권고는 실제로 반영하는 우려보다는 이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단순한 헌신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변절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가진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일부 구성원, 반드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더 큰 그리스도인 집단과 함께 모이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25에서 저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은 저자가 개종자 중 일부가 그리스도인 집회에 나타나는 것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분명히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자들은 비기독교 이웃들의 기대에 다시 한번 적응하는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했고, 고향 도시에서 다시 한번 집에 있고자 노력하며, 약속된 이 하늘의 도시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데 지쳐 버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듣는 사람들이 직면한 즉각적인 위험은 헌신의 실패와 그 결과, 즉 기독교 집단을 떠나고 기독교 메시지가 그들 앞에 내놓은 상에 대한 집중을 포기하는 것인 듯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장 1절에서 회심할 때 들은 메시지에서 떠나려가는 위험이나, 2장 3-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증명된 구원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는 위험에 대해 읽습니다. 우리는 3장 12절과 13절에서 불신으로 인해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위험이나, 4장 1절에서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이나, 4장 12절에서 광야 세대가 신뢰의 실패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패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패하는 위험에 대해 읽습니다.

또는 우리는 12장 3절에서 지치고 낙담하는 위험에 대해 읽거나, 12장 15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읽습니다. 우리는

설교 전반에 걸쳐 이 같은 기본적인 위험과 따라서 같은 기본적인 도전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를 발견합니다. 공동체에는 헌신에 흔들리고 받은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에 흔들리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가입함으로써 실제로 신을 만났다는 확신과 약속된 보상이 실제적이며 그러한 보상이 약속된 그룹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의 가치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 신자들은 세상에서 명예 없이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약속된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을 보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항상 다가오지만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의 공간에서 사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지상 도시에서 그들의 자리와 지위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기초인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에서 그들의 명예와 지위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중의 일부 구성원은 그룹에서 이탈하는 것을 회복으로 가는 길, 의심할 여지 없이 회개자와 개혁자를 환영했을 이웃의 품에서 이 삶의 남은 것을 되찾는 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이 글에서 한 가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흔들리는 헌신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처음 기독교 운동에 합류했을 때 향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이전에 보였던 것과 같은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 저자는 3장 6절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에서 오는 자랑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썼습니다. 또는 3:14에서 우리가 원래의 헌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는 4장 11절에서 청중들에게 권고하기를, 누구든지 광야 세대가 보인 불순종의 본보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서두르자고 합니다. 그는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그들에게 권고하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붙잡자고 합니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계속 가까이 다가가자고 합니다.

그는 6장 11절에서 여러분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을 위해 같은 간절함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10장 23절에서 25절에서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계속 가까이 다가가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그리고 10:35에서 큰 보상을 품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더 많은 사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해 저자는 청중이 사회와의 긴장을 경험하게 된 정체성, 관행, 경계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바람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설교의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중의 끈기,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감사를 유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사적 인센티브 또는 수사적 제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청중을 위한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저자가 끈기를 유발하는 세 가지 주요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고 청중에게 상황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떨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받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들이 그들에게 던져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에게 수치심을 떨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이 첫 번째 전략은 그리스도인 이웃이 그들의 개종과 새로운 충성심, 새로운 관행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이웃들은 개종자들을 그들의 이전 활동, 즉 그들이 긍정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부끄럽게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 이웃의 경우, 전통 신에 대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일상 생활을 뒷받침하고 보존했습니다. 또는 비기독교 유대인 이웃의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경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멸시하여 사회적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하여 이웃의 사회적 통제 시도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이 전략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더 큰 영예를 얻기 위해 수치심을 멸시해야 했던 사람들의 칭찬할 만한 예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특히 아브라함, 모세, 순교자들의 예, 그리고 예수 자신의 가장 뛰어난 예는 모두 믿음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영예를 추구할 자유를 누려야 했던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공동체의 과거 사례를 기억하는 것도 이 흐름에 속합니다. 또한 저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경험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낳는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청취자의 상황을 이웃의 사회적 압력을 극복함으로써 경쟁하고 잠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고귀한 경연으로 묘사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신성한 파이데이아에 대한 은유의 배후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이 받을 조국의 명예롭고 덕이 있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 주변에 두신 형성적 훈련입니다. 저자의 전략의 또 다른 주요 구성 요소는 듣는 사람의 눈을 그들이 받은 모든 혜택과 아직 받기를 바라는 모든 혜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신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비할 데 없는 선물에 집중하도록 하는 저자의 수사적 전략의 핵심이며, 예수의 하나님의 은총의 증재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증재자로서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의 가치를 그들의 마음에 고정시키고자 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 집단과 함께 버티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연결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의 초점을

그들이 포기한 것에서 벗어나 받은 것, 그리고 그들의 감사의 빛과 신성한 후원자에게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우주의 신과의 이 후원자-수혜자 관계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의 궁극적인 중요성을 다른 모든 인센티브나 목표보다 높입니다. 후원과 호혜는 저자와 그의 청중이 움직인 사회적, 문화적 세계의 기반이었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다른 사람의 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수확 후 새로운 작물을 심을 씨앗이나 이 세상에서 상항 이동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에서 어떤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 그런 은혜의 표현은 실제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더 많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부유한 시민이 잔치를 베풀거나 도시 전체의 게임 비용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공적 자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호혜는 오래 지속되는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윤리가 종종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인 카리스의 의미에 집약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

하지만 이 그리스어 단어 카리스는 실제로 세 가지 뚜렷하지만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의, 베푸는 성향, 따라서 번역은 은혜입니다. 선물 자체, 그리고 베푸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감사.

이 한 단어 charis는 세 가지 의미를 하나로 모아서 이 사회적 구조를 긴밀하게 엮어주는 상호성의 그물을 만듭니다. 프레스코화, 열은 부조, 조각상에 자주 등장하는 고전적인 이미지는 세 명의 여성이 함께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이미지로, 종종 손을 잡고 있거나 한 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얹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세 가지 은혜를 나타냅니다.

세네카는 이 이미지에 대해 말하면서, 상호성의 세 가지 측면에 관해 여성, 이 세 가지 은혜 또는 여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 주는 것에 대한 은혜가 하나 있고, 잘 받는 것에 대한 은혜가 두 번째이며, 세 번째 은혜는 잘 돌려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주는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감사의 응답을 하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주는 사람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적절한 시기에 선물이나 서비스를 돌려줄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와 그의 청중이 히브리서를 구성하고 듣는 데 가져온 사회 문화적 논리입니다. 따라서 저자가 수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받은 혜택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그들이 해야 할 감사의 반응과 연결시키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예수와의 지속적인 연결은 그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지속적인 즐거움을 보장하고, 영원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최종적인 은혜인 충만함을 누리는 길에서 끈기 있게 버티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는 히브리서의 경고 구절을 들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는 매우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순히 청중들에게 그렇게 관대하고 강력한 후원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와 그의 선물을 배신하고, 이웃에게 다른 인간의 호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하여 얻은 하나님의 호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증거함으로써 그를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성 요소 전반에 걸쳐 있는 저자의 전략의 세 번째 주요 구성 요소는 청중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각 개인이 인내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지가 부족한 사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자는 모든 개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동료 그리스도인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그는 신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고 인내심을 키우는 방식으로 서로의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견뎌온 비기독교 이웃의 반응의 침식적 효과에 대한 중요한 보상제와 균형추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자는 각 개인의 인내를 위한 집단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3장 12절 이하의 권고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러나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매일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는 여러분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로 강박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는 몇 구절 뒤인 4장 초반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동안 여러분 중 누구든지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설교의 결론에 이르러 그는 계속 조심하라고 촉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사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 뿌리가 돌아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에사우처럼 육적이고 불경건하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만아들의 권리를 팔았습니다. 저자가 이 시점까지 청중 중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5장에서 읽은 대로, 더 확고한 신자들이 덜 헌신적이고 덜 확고한 자매와 형제들을 돕는 데 있어서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관과 기독교 집단의 관행에 대한 헌신을 가장 현명하고 유리한 행동 방침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룹 구성원이 흔들리는 것을 지속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적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물러서는 이러한 개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전체를 약화시키고 뒤에 남는 사람들의 헌신을 침식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의 사업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그럴까요?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이 같은 움직임이 하나님과 그들의 천상 유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또한 믿는 이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헌신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과 가족, 형제 자매의 사랑의 현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전 프레젠테이션에서 저자, 회중, 그들이 처한 상황, 저자의 목회적 목표와 전략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분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가입니다. 불행히도 저자와 수신자의 위치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답할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말 이전에 쓰여졌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사도 교부 중 한 명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자신의 서신을 쓰면서 히브리서의 첫 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서기 96년경으로 추정되므로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보다 일찍 쓰여졌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동료 중 한 명인 디모데는 여전히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다시 서기 96년 이전의 어느 시점을 가리킨다. 학자들은 구성 범위를 더욱 좁히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윌리엄 레인은 Word Biblical Commentary Series에서 히브리서에 대한 권위 있는 주석에서 로마에 있는 히브리서를 마치 그곳의 기독교인에게 전달된 것처럼 설정했다.

그는 회중이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진술에서 그 편지가 기원후 64년경 네로가 그 회중을 박해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불행히도, 그 논문은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의 수신인을 찾는 데 달려 있는 반면, 대부분의 증거는 그들이 이탈리아 외부에 있고, 저자는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거나, 아마도 로마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의 희생 제사에 대한 언급을 히브리인이 적어도 성전이 파괴된 기원후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저는 저자가 성전에서의 제사에 대해 한 진술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단되기 전에 더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장의 서두에서 저자는 율법이 해마다 계속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진술의 끝 부분에 있는 수사적 질문은 제사가 실제로 레위기와 그 규정에 따라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사적 질문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때까지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또한 9장 8절과 9절에서 지상 장막의 첫 번째 방인 성소는 성전의 지성소와 유사한 두 번째 방과 대조적으로, 현재 시기에 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예배자의 양심에 관하여 온전케 할 수 없는 예물과 제사가 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저자와 청중이 이러한 제사가 실제로 계속 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저자는 모든 제사장이 날마다 자기의 예배에 서서 죄를 결코 없앨 수 없는 동일한 제사를 거듭거듭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또한 레위 제사장들이 성경에서 규정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반영하는데, 이러한 제사에서 죄를 매년 상기시키는 것이 계속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며, 이러한 구절들이 70년 이전의 날짜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슈나와 1세기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이러한 레위 제사를 서기 70년 이후에도 지속적이거나 현재적이거나 현재적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합니다.

저자는 70년 이후에 글을 썼을 수도 있고 성전의 파괴에 대해 말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주장 중 어느 것도 저에게는 설득력 있거나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자가 성전의 파괴에 대해 말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 저자는 레위인

희생 제사의 마지막 못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 31장 31-34절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구절을 해석하면서 옛 언약이 낡아지고 폐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자입니다. 또한 요세푸스와 미슈나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희생에 특별한 투자를 했고, 언젠가는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행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희생을 기억 속에 간직한 이유를 현재 시제로 지속되거나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결정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희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그러한 희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효과가 없는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예수의 죽음 이전의 과거로 격하시킵니다. 그가 현재 순간과 미래의 모든 순간에 가치 있게 여기는 유일한 희생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치르신 희생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한 설교를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보낸 통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합리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날짜를 더 좁힐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설교의 저자, 그의 배경, 그의 예술성과 기술, 그의 목적, 그리고 그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증거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다루는 기독교 공동체 또는 공동체들의 인구 통계와 역사를 가능한 한 완벽하게 재구성했으며,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목회적 개입을 야기하는 현재의 도전을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의 각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데, 이는 텍스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가 청중을 설교자가 그들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충실하고 유리한 반응이라고 믿는 방향으로 위치시키는 방식에 대한 관점을 일관되게 고려할 것입니다.